

청소행정 시스템 전면改善 추진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안 시의회 제출

올해 4월 들어 청소행정 시스템 전면개선을 위한 7대 과제 20개 단위사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온 포천시가 6개월여를 지나며 그 결실을 맺고 있다.

포천시는 그간 청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간부공무원 1일 현장체험'과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며 특히 올 상반기 '국도대청결 운동'을 중점 추진해 연인원 34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3천116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생활폐기물 처리 평가제도'를 시행해 우수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포천시가 이같이 청소행정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기로 한 것은 지난 2003년 10월 시 승격 이후 인구 증가와 대규모 상가 조성, 그리고 이로 인한 대량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주5일제 근무가 환경미화 직종에 확대된 것도 한 요인이 됐다.

포천시는 아울러 청소행정 시스템 개선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를 마치고 현재 포천시의회에 이를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농촌 등에 대한 청소차량 운행요일 별도지정(효율성) ▶대형폐기물의 납부필증을 금액별 색상 달리 제작(수거편의) - 금액 : 1천원권(녹색), 2천원권(청색), 5천원권(오렌지색) ▶잡 쓰레기, 도배지, 장판, 폐목재 등 수거체계 확립(민원해소)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시 투명한 비닐 봉투로 배출(수거편의)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명시(행정지도의 명료, 일몰 후 : 저녁 8시, 출전 : 새벽 5시 까지) ▶규격봉투의 제작 사양을 끈·지퍼·접착식 등 확대(사용 편의) ▶종량제 봉투에 상업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주5일제 근무가 환경미화 직종에 확대된 것도 한 요인이 됐다.

개정안은 ▶농촌 등에 대한 청소차량 운행요일 별도지정(효율성) ▶대형폐기물의 납부필증을 금액별 색상 달리 제작(수거편의) - 금액 : 1천원권(녹색), 2천원권(청색), 5천원권(오렌지색) ▶잡 쓰레기, 도배지, 장판, 폐목재 등 수거체계 확립(민원해소)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시 투명한 비닐 봉투로 배출(수거편의)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명시(행정지도의 명료, 일몰 후 : 저녁 8시, 출전 : 새벽 5시 까지) ▶규격봉투의 제작 사양을 끈·지퍼·접착식 등 확대(사용 편의) ▶종량제 봉투에 상업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주5일제 근무가 환경미화 직종에 확대된 것도 한 요인이 됐다.

회 형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포천시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복무규정을 제정 중에 있으며, 아울러 이달 안에 운행시간표를 청소차량마다 비치해 생활쓰레기 수거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전면적인 청소행정 시스템 개선을 통해 다가오는 2007년에는 포천이 전국 최고의 쾌적한 도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원 기자 form65@paran.com

지역상품 선물특선 카탈로그 발간

포천소재 기업체 생산제품 수록 2천부 배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포천시와 포천상공회의소가 추석 대목을 겨냥해 지역 내 54개 중소기업의 생산 제품들을 수록한 카탈로그 2,000부를 발간했다.



포천시와 포천상공회의소가 추석 대목을 겨냥해 지역 내 54개 중소기업의 생산 제품들을 수록한 카탈로그를 발간했다.

'포천시 지역상품 선물특선'이란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상품안내서는 경기북부관공서와 전국상공회의소, 금융 및 유통업체, 포천지역 중소기업체 등에 배포했다.

포천시는 품목별 제품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데 주력했으며, 추석선물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 및 기업체 구매담당자들에게 이를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포천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의 인지도도를 높여 기업경쟁력 개선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산정호수명성산악재꽃축제, 포천시민의 날 등 각종 대규모 행사

때 이밖에 제작한 상품안내서를 비치,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승원 기자 form65@paran.com

포천쌀 팔아주기 검 불우이웃돕기

포천중·일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조성인)는 17일 모교 운동장에서 1,500명의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한마음축제를 개최했다.

동문회는 행사 축하화환을 일체 받지 않고 포천쌀로 대신 접수했으며, 여기에 동문들이 별도로 모금한 양을 더해 모두 10kg들이 쌀 1,000포대를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에게 전해 달라며 포천시에 기탁했다. 아울러 이날 포천쌀 팔아주기 운동도 함께 전개돼 더욱 의미 있는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승원 기자 form65@paran.com

이번 축제는 포천종합고등학교에서 포천일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된 첫해 치러진 행사로, 동문들간의 화합은 물론 불우이웃돕기와 포천쌀 팔아주기 운동이 함께 한 뜻 깊은 행사였다.



포천중·일고등학교 조성인 총동문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황영철 포천시 부시장에게 불우이웃돕기에 새달려 쌀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장폭행 구속추구 1인 시위

영종면 대책위, 의정부 지방검찰청 앞

지난 7월9일 발생한 박낙영 이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포천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비롯한 포천시이장협의회, 영종면 주민대책위원회는 의정부 지방검찰청 앞에서 책임자 구속수치를 촉구하며 5일간 1인 시위를 벌였다.



포천시 영종면 주민들은 박낙영 이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구속수치를 촉구하며 5일동안 1인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를 벌였던 주민들은 금화봉 일대 석산개발을 하려는 마태사 주지가 지난 7월9일 석산개발을 반대하는 영종면 거사리 박낙영 이장을 폭력배를 동원해 폭행하고 강제로 석산개발 동의서에 날인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마태사 주지이자 모산업 대표이사인 재호삼남 구속을 요구했다.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경찰의 늑장수사로 2개월여째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폭력사태 책임자를 구속하고 다시는 이와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이장을 폭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해 온 사실을 공개사과하고 석산개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후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원 기자 form65@paran.com

포천소방서 다양한 활동펼쳐

기계고장 교통사고 화재 대민지원까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포천지역에서 5건의 화재가 발생해 1억3천3천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포천소방서가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포천지역에서 5건의 화재가 발생해 1억3천3천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포천소방서가 밝혔다.

이런 운전자들을 구출했다. 이 운전자는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이 충격식 폼비를 이용, 조수석 문을 개방한 후 운전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또 기업체 안전사고도 빈발, 구조를 위해 18번의 출동으로 7명을 구출하고, 부상자 혹은 긴급을 요하는 긴급출동 96건에 98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밖에도 지난 16일 가산면 우금리 철제외자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의자완제품 255개와 공기집진기 등 집기류 30점 등 6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포천소방서는 16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회 경기지방경찰청기 추구대회 소방력(구급대) 지원과 17일 6군단내 지하저수조 모터고장으로 10톤의 급수를 지원했다.

또 포천소방서는 16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회 경기지방경찰청기 추구대회 소방력(구급대) 지원과 17일 6군단내 지하저수조 모터고장으로 10톤의 급수를 지원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신북면 만세교리 김문소 부근에서 탱크로리와 승용차가 충돌해 탱크로리 차량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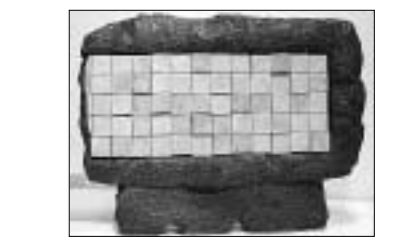
충돌해 탱크로리 차량에

경기북부여성작가전 23일 개막

경기북부여성작가회가 주최하는 제5회 정기회원전이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유화, 아크릴, 수채화, 테라코타, 켈트 등 모두 35명의 회원들이 출품한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지난 2002년 '미술봉사를 통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문화발전'을 위해 조직된 경기북부여성작가회는 올해 1월 경기도 비영리단체로 등록했으며 정기회원전 외에도 미술체험교육과 보육시설 미술봉사 등의 뜻 깊은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경기북부여성작가회 차하숙 회장은 미술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을 문화예술의 목표로 가꾸어 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승원 기자 form65@paran.com



▲김혜정작 '동경2006-44'의 한 장 (조원태)



▲김혜정작 '식물의 사유-비림' (acrylic on canvas)

차별화된 맛을 제공하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

1층 돼지갈비, 암소이동갈비, 2층 풍천민물장어

16년동안 한결같은 맛을 제공하고 있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는 최상급 이동갈비 사용으로 육질에서 당연 으뜸입니다.



신메뉴 출시

자연산장어 민물장어

★250석 보유, 연중 예약 실시★
★고객을 위한 차량 항상 대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49-4
대표 김애화
031) 542-1887~8